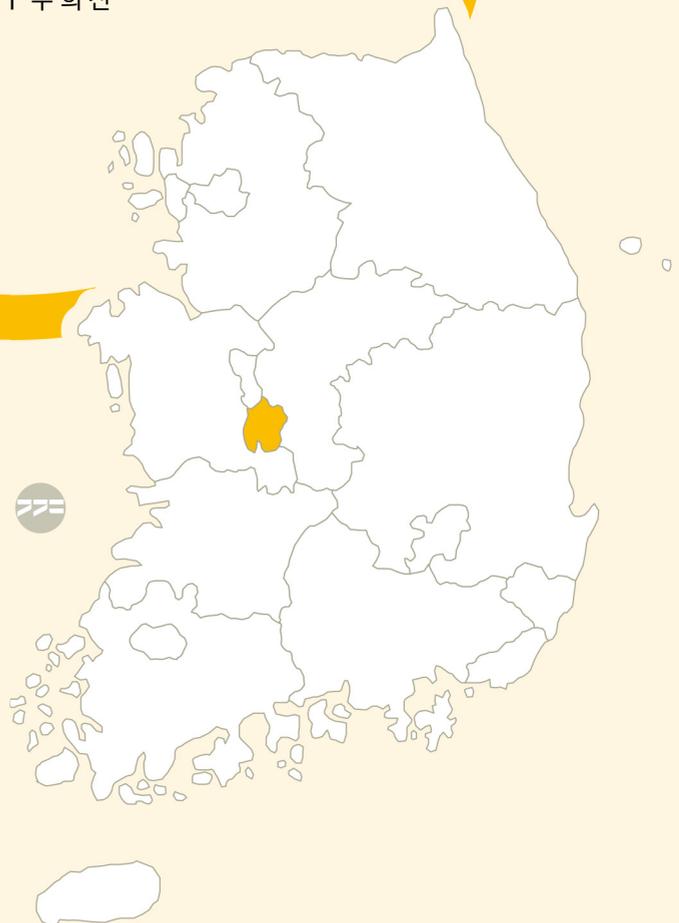




대청호 유역 주민 소득증대 방안 연구

정기용 | 주희진





대청호 유역 주민 소득증대 방안 연구

연구진

정기용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주희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4
II	현황분석 및 주민 소득증대사업 발굴전략	
	01. 대청호 유역 일반현황분석	6
	02. 대청호 적용규제 분석	10
	03. 환경분석	15
	04. 소결론: 주민 소득증대사업 발굴전략	17
III	주민 소득증대사업 사례분석	
	01. 도시농업	20
	02. 치유농업	23
	03. 그린 투어리즘	25
	04. 레지던시 프로그램	27
	05. 스마트팜	30
	06. 로컬푸드 사업	32
	07. 마을기업	34
IV	주민 소득증대사업 도출: 주민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01. 주민 인식조사 개요	38
	02. 주민 인식조사 결과	39
	03. 소결론: 주민 소득증대사업 유형 도출	43
V	결론	
	01. 연구의 요약	46
	02. 대청호 유역 주민 소득증대 사업 추진 방안	47
	참고문헌	50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대청호는 1980년 금강 중·하류지역의 홍수조절 및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목적으로 건설된 대청댐을 통해 형성된 인공 호수로 대전, 청주, 천안 등 충청지역과 군산 등 전라북도의 일부 지역에 생활, 공업 및 관계용수를 공급하는 중요한 상수원 역할을 함
- 대청호는 상수원 확보 및 수자원 보호를 위해 1980년 「수도법」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1990년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2002년에는 「금강수계법」에 의한 수변구역 지정 등 7가지 규제가 중복으로 적용되어 각종 시설의 입지와 토지이용이 제한됨
 - 전국 상수원보호구역 중 대청호의 상수원보호구역이 가장 넓으며(178.98km²), 상수원보호구역과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 동시에 지정된 곳은 전국 상수원보호구역 286개 중 대청호와 팔당호 뿐임
- 대청호의 수자원 보호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토지이용제한은 필수적이지만 대청호 유역 주민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각종 행위가 제한되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받는 등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음
 - 대청호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면적 중 대전광역시 동구는 면적의 44.8%, 대청동은 면적의 96.5%인 61.26km²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적용으로 상수원관리규칙에 허용이 가능한 것으로 명시된 시설물 외에는 모든 건축물과 공작물의 설치 및 용도변경이 불가능함
 - 대청댐 건설로 인하여 대청호 인근지역 주민은 내륙환경에서 호수환경으로 바뀌으로써 발생한 안개로 농업소득 감소, 주민건강 피해, 어업권 감소 및 노선 폐쇄에 따른 교통 불편 등과 같은 피해가 누적되어 경제적 피해와 함께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이 지속됨
 - 2020년 10월 남양주시는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정도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는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음

-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시설 개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계기금으로 주민지원사업이 지원되고 있으나 규제 사항을 상충할 수 있는 만큼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대청호 유역 주민의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1980년 대청댐 건설 이후 42년간 대전 동구 대청동의 피해액은 약 4,300억 원으로 추정됨 (대전광역시 동구, 2023)
 - 음식점은 신축이 불가능하며 음식점 용도변경 등 각종 행위 제한 완화는 1980년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거주했던 원거주민에게만 허용됨
 - 대청호 오백리길(산책로)이 조성되어 있으나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 조성이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공원도 원칙적으로 조성이 불가능하여 공원이 아닌 생태관, 수변생태벨트 등의 이름을 사용하는 등 관광객 유입에도 한계가 있음
- 상수원보호구역 내 입지 가능 시설의 제한으로 대청호 유역 주민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주요 소득원 역시 농작물과 관련되어 있음
 - 대전 동구 대청동의 인구는 2002년 3,438명에서 2022년 2,348명으로 31.7%가 감소하여 인구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음(대전광역시 동구, 2023)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오랜 기간 고통을 겪은 대청호 인근 주민의 고통을 해소하고 지역소멸을 방지하는 등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청동 주민의 소득사업 발굴이 필요한 상황임
-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대부분의 면적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동의 현황을 파악하고, 적용되고 있는 규제를 검토함으로써 현행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내 대청호 유역 주민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함
 - 이와 함께, 주민의 소득증대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과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여 지역소멸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현황분석 및 주민 소득증대사업 발굴전략

1. 대청호 유역 일반현황분석

□ 대청호 일반현황

- 대청호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구, 충청북도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등에 걸쳐 입지한 금강 최초의 다목적 댐인 대청댐이 건설됨으로써 형성된 인공호수임
 - 대청댐은 1975년 3월부터 1980년 12월까지 총 5년에 걸쳐 4대강 유역 수자원 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높이 72m, 길이 495m의 다목적 댐임
 - 대청호의 유역면적은 3,204km²이며, 저수면적은 72.8km²으로, 대전, 청주, 천안, 군산 등 충청과 호남지역에 연간 16.5억m³의 생활 및 공업용수를 공급함¹⁾
- 대청호의 지리적 입지는 동쪽으로는 충북 옥천군 및 보은군과 인접하며, 서쪽으로는 대전 동구 및 대덕구, 남쪽으로는 충남 금산군, 북쪽으로는 충북 청주시와 인접해 있음
 - 대청호 주변 지역은 강안을 따라 절벽을 형성하고 있으며 계곡이 많은 산지 형태임
- 대청호는 1973년 6월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시작으로 1980년 11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1990년 7월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2002년 수변구역으로 지정됨

◀ 표 1 ▶ 주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현황

구분	행정구역	유역면적	급수인구	지정면적	지정일
대청호	대전, 청주, 보은	3,204km ²	350만 명	179km ²	1980.11.24.
팔당호	광주, 남양주, 양평, 하남	23,800km ²	2,300만 명	159km ²	1975.07.09.

자료 : 대전광역시 동구(2023)

1) 한국수자원공사 다목적댐 및 용수댐 현황(<https://www.kwater.or.kr/>)

- 대전광역시 동구는 전체 면적 136.7km² 중 61.26km²(동구 면적의 44.8%)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됨
 - 대전광역시 동구는 대청호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대청호 유역 인근 지역보다 각종 건축물의 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 표 2 ▶ 대청호 인근 시·군별 건축물 현황

(단위 : 개)

구분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동구	보은군	옥천군	청주시
주택	1,077	1,583	17,213	1,561
호텔	-	-	-	-
숙박업소	-	1	38	3
음식점	71	35	840	67
공장	-	16	1,057	4
종교시설	20	2	119	21
농작물 관련 시설	27	17	53	62
기타 건축물	304	534	4,230	416
축사	-	200	731	38
합계	1,499	2,388	24,281	2,172

주 : 2021년 기준
자료 : 환경부(2022)

□ 대청동 일반현황²⁾

- 대청동은 대전광역시 동구 동북단의 대청호를 둘러싸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옥천군과 경계를 이루며 서쪽은 대전 대덕구, 북쪽으로는 대청호를 포함하여 대덕구 신탄진동과 인접해 있으며 남쪽으로는 대덕구 회덕동과 접경을 이루고 있음
- 1973년에 대청댐 사업타당성 조사 시작 이후 자연환경, 생활환경, 주요시설 및 규제현황 등 많은 변화가 발생함
 - 1980년 대청댐 건설로 대청동 총면적의 23.8%인 15.13km²가 수몰됨

2) 대전광역시 동구청 홈페이지(<https://www.donggu.go.kr/dg/kor>)

- 상수원의 취수를 목적으로 각종 시설물이 많이 입지하게 되었으며, 지역의 자연환경은 호수 형성의 영향으로 안개 발생이 잦아졌으며, 상수원관리지역의 토지이용 제한으로 농업 및 일반생활에 제한이 발생함
- 2023년 4월 기준 대청동 인구수는 2,302명으로 대전 동구 인구(219,727명)의 1.05% 수준으로 대전 동구의 총 16개 행정동 중 인구 비율이 가장 낮음
 - 대청동의 총 세대수는 1,225세대이며, 세대당 인구는 1.88명임
 - 대청동 인구 2,302명 중 남성은 1,199명이며, 여성은 1,103명임
 - 대청동 인구의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65세 이상 인구가 911명으로 대청동 총 인구의 39.5%를 차지하고 있어 대전 동구의 16개 행정동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음 (대전광역시 동구 평균 21.2%)

◀ 표 3 ▶ 대청동 일반현황

(2023.4.30. 기준)

면적(km ²)	세대수	인구수(명)			65세 이상 인구수(명)
		계	남	여	
63.46	1,225	2,302	1,199	1,103	911

자료 : 대전광역시 동구청 홈페이지(<https://www.donggu.go.kr/dg/kor>)

- 대청동의 면적은 63.46km²로 대전 동구 면적(136.67km²)의 46.4%이며, 대청동 전체 면적의 96.5%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됨
 - 대청동의 총 15개 법정동 중 비룡동, 세천동, 주촌동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면적은 상수원 보호구역 면적과 동일함
 - 대청동의 지목면적을 살펴보면 임야가 59.2%로 산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전이 4.4%, 답이 3.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반면 도로, 공원, 학교용지, 종교용지 등 공공목적의 대지는 6.0% 수준이며 주택, 공장, 창고 등 개인 목적의 대지 비율은 0.9%로 나타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를 위한 환경이 매우 제한적임

◀ 표 4 ▶ 대청동 지목면적 현황

(단위 : m²)

구분	지목						
	합계	전	답	임야	대지1	대지2	기타
면적	63,570,940	2,821,152	2,240,569	37,949,632	3,741,507	600,476	16,037,064
상수원 보호구역	61,367,621	2,717,242	2,376,319	36,660,557	3,691,964	582,102	15,669,437
비중	100.0%	4.4%	3.9%	59.2%	6.0%	0.9%	25.5%

주 : 전=과수원 / 대지1=학교, 도로, 철도, 공원, 체육, 종교, 용지, 사적지 / 대지2=공장, 창고용지, 주차장 / 기타=하천, 제방, 수도, 목장, 묘지, 잡종지
 자료: 대전발전연구원(2015)

□ 대청동 관광자원 현황

-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호 유역의 대청동에는 찬샘마을(농촌체험마을), 대청호자연생태관, 대청호오백리길 등의 관광자원이 존재함
- 찬샘마을은 농촌체험마을로 2008년 농촌체험 및 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되어 마을의 자원과 공간을 활용하여 농업, 생태, 공예, 문화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동 주민과 대청동 외 대전 지역 소상공인이 매주 토요일 농촌체험 학습을 진행함(나무토막공방, 고은설기, 천연비누 제작 등)
 - 옥수수, 복숭아, 감자, 고구마, 매실, 밤 등 농산물 체험장을 운영하고 함께 봄, 여름, 가을, 겨울 패키지 체험 및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함
 - 총 4개의 교육관이 존재하며, 숙박도 가능함
- 대청호자연생태관은 대청호 주변에 서식하는 어류와 곤충, 동·식물 등 대청호의 자연 생태와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생태 체험 학습장이자 자연 친화적인 휴식공간임
 - 자연생태 관련 전시관과 함께 버섯체험장, 도자기 제작 체험 등 다목적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대청호오백리길은 대청호와 인접한 대전광역시 동구, 대덕구, 충북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에 걸쳐 총 21개 구간으로 구성된 둘레길임
 -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동에는 21개의 구간 중 3~5구간이 포함되어 있으며 구간 내 대청호 자연생태관, 갈대밭, 전망대, 취수탑, 명상정원 등이 위치하고 있음

2. 대청호 적용규제 분석

□ 대청호 유역 적용규제 종류

- 대청호 유역은 수질보전, 생태보전, 국토관리, 산림보호 등을 목적으로 7가지 규제가 중복 적용되고 있음
 - 환경부는 수질보전을 위해 상수보호구역,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을 지정하고 있으며, 생태보전을 위해 야생동물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는 국토관리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관리하며, 산림청은 산림보호구역,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하여 보전 및 관리함
- 총 7가지 규제 중 수질보전을 위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가 가장 강력한 규제이며, 상수원 관리규칙(환경부령)에 명시된 허용 가능한 시설물 이외에는 모든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 및 용도변경이 불가능함

◀ 표 5 ▶ 대청호 유역 규제 종류

규제 종류	지정근거	비고
상수원보호구역	수도법, 상수원관리규칙, 금강수계법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환경정책기본법,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환경부 상수원 관리지역
수변구역	금강수계법	
야생생물보호구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부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교통부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법	산림청
수산자원보호구역	수산자원관리법	해양수산부

자료 : 대전광역시 동구청(2023) 재구성

□ 대청호 상수원관리지역 규제

- 「수도법」 제7조에 의해 1980년 11월 24일 대청호의 상수원보호구역이 최초 지정됨
 - 대청호의 상수원보호구역은 대전광역시 동구, 대덕구, 충북 청주시, 보은군에 총 178.98 km²가 지정됨

- 대전광역시는 2개 구 및 2개 동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개 구 중 동구는 61.26km²(34.2%), 대덕구는 16.45km²(9.2%)가 지정되어 총 77.71km²(43.4%)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됨
 - 충북 청주시는 94.85km²(53.0%), 충북 보은군은 6.42km²(3.6%)가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됨
 - 충북 청주시가 대청호 상수원관리지역 중 가장 넓게 지정되어 있으나, 대전 동구는 면적의 44.8%, 대덕구는 30.5%, 특히 대청동은 면적의 96.5%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토지이용에 큰 제한을 받고 있음
-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환경부 고시)」 제3조 및 별표2에 의해 대청호는 1990년 7월 19일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됨
 -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은 제 I 권역과 제 II 권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대청호는 총 700.69 km²(제 I 권역 386.31km², 제 II 권역 314.38km²)가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됨
 - 대전광역시 동구, 충북 청주시, 충북 보은군 및 옥천군이 제 I 권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충북 옥천군은 제 I 권역 및 제 II 권역 모두 지정됨
 - 대전광역시 동구는 제 I 권역에 포함되어 63.66km²가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대덕구는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음
 - 「금강수계법」 제4조에 의해 2002년 9월 18일 대청호는 수변구역으로 지정됨
 - 대청호 수변구역은 대전 동구, 충북 보은군, 옥천군에 총 155.24km²가 지정됨
 - 대전광역시 동구는 대청동의 일부인 1.58km²가 수변구역으로 지정됨

◀ 표 6 ▶ 대전호 상수원관리지역 현황

(단위 : km²)

구분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소계	I권역	II권역	
지정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상수원관리규칙」 제4조 「금강수계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팔당·대전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환경부 고시)」 제3조 및 별표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강수계법」 제4조
지정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원수 연평균 TOC(총유기탄소량) 2ppm 초과 시 취수시설의 상류 집수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오염·환경훼손이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및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 및 그 상류지역 중 필요한 지역 댐 경계 1km 이내, 금강 본류 경계 500m 이내, 지류 경계 300m 이내
합계	178.98	700.69	386.31	314.38	155.24
대전 동구	61.26 (34.2%)	63.66 (9.1%)	63.66 (16.5%)	-	1.58 (1.0%)
대전 대덕구	16.45 (9.2%)	-	-	-	-
충북 청주시	94.85 (53.0%)	87.89 (12.5%)	87.89 (22.8%)	-	-
충북 보은군	6.42 (3.6%)	98.65 (14.1%)	98.65 (25.5%)	-	26.53 (17.1%)
충북 옥천군	-	450.49 (64.3%)	136.11 (35.2%)	314.38 (100%)	127.13 (81.9%)

자료 : 대전광역시 동구(2023) 재구성

● 상수원보호구역의 행위규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공장, 숙박업, 식품접객업, 축산시설, 양식장, 폐기물 처리시설, 골프장·골프연습장, 광물 채굴·채석 행위, 집단모이는 입지가 불가능함
- 이와 함께, 가축 방목, 수영 이용 레저행위, 목욕, 세탁, 행락·야영, 야외 취사 행위, 어로행위, 세차, 하천구역 내 경작 등이 금지됨
- 단, 어업은 원거주민 및 허가된 자망·연승 어업이 가능하며, 유·도선업도 공익목적으로는 선박 운영이 가능하며, 일반건축물은 농가주택 신축(100㎡ 이하), 영농·공공시설은 제한적으로 허용됨

□ 환경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주요 행위제한 완화

- 관할 시청·군수·구청장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에 형성된 자연마을로서 하수도의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쉬운 보호구역의 일정 지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오수·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계획을 세워 시행할 경우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상수원관리규칙」 제14조 제1항)
 -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및 공고되면 환경정비구역 내 기존 주택과 공장의 신·증축과 용도변경이 가능함(「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
 - 대전광역시 동구와 대덕구 일대는 2013년 하수도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18년 공공하수관로가 준공되면서 환경정비구역이 확대되어 주택 신축 및 증축, 음식점 증축 및 용도변경이 완화된 지역이 확대됨

◀ 표 7 ▶ 환경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주요 행위제한 완화 내용

구분	완화 내용	비고
주택 신축·증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축·증축은 연면적 100㎡ → 200㎡로 완화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 6개월 이상 실제 거주 주민 한정
음식점 증축 및 용도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공장·주택을 음식점으로 증축 및 용도변경 가능 • 바닥면적 합계 100㎡까지만 용도변경 허용 • 기존 음식점은 기존 면적 포함 연면적 100㎡까지만 증축 가능 • 주택 총 호수의 20%까지만 음식점으로 증축 및 용도변경 가능 	원거주민 한정

- 환경정비구역 지정으로 대청동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규제가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한계점이 존재함
- 음식점 용도변경과 관련된 한계점은 다음과 같음
 - 주택의 신축 및 증축은 200㎡까지 가능하지만, 음식점 용도변경은 100㎡까지만 허용됨
 - 음식점 내 조리실, 화장실 등을 포함하면 실제 영업할 수 있는 공간은 소규모임
 - 음식점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반복되고 있어 대청동 주민과 행정기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 대청동 주민은 음식점 증축 및 용도변경을 200㎡까지 확대가 적절하다고 주장함

- 민박시설 허용과 관련된 한계점은 다음과 같음

- 음식점보다 오염물질 발생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³⁾ 민박업은 허용되지 않고 있음
- 대청동 주민은 대청동 인구의 39.5%가 65세 이상인 고령화를 고려하여 연면적 200㎡까지 민박시설 증축 및 용도변경을 요구함

□ 「대전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

- 대전광역시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향상과 공동으로 이용하는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을 정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함

- 2023년 4월 7일 '대전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어 4월 21일부터 시행됨

- 「대전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는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에서 위임한 사항에 의해 대전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내 허가대상 건축물 7가지를 규정함

- 소득기반시설은 총 3가지로 농림업용 취수시설, 농림업 체험·실습시설, 스마트팜 방식 작물재배사⁴⁾를 규정함
-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총 4가지로 주민자치센터, 공동작업장⁵⁾, 지역특산물 판매장, 주민 복지회관을 규정함

- 타 지방자치단체의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설치 조례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스마트팜 방식 작물재배사가 전국 최초로 지정되었으며, 농림업 체험 실습시설의 연면적이 300㎡까지 가능하여(대전, 경기 제외 200㎡ 이하) 소득기반시설의 규제는 완화된 것으로 판단됨
- 스마트팜 방식 작물재배사 설치가 가능하므로 스마트팜 작물재배사 설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반면, 도서관, 어린이집, 공원, 공동목욕장 등은 설치가 불가능하여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범위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판단됨

3) 건축물별 오수발생량(BOD) : 일반음식점(한식) 330mg/L, 농어촌민박 140mg/L(환경부 고시 제2021-59호,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4) 스마트팜 방식 작물재배사 항목은 대전 지역에서만 가능한 시설(타 2가지 항목은 타 지자체 공통 항목)

5) 2021년 11월 마을공동작업장이 조성되었으나 관련 허용 규칙이 없어 방치되고 있음. 조례안 통과 근거로 공동작업장 활용이 가능해짐

3. 환경분석

□ 내·외부 환경분석

- 대청호 유역 일반현황 및 적용되는 규제를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대청호 유역 주민의 소득 증대사업 발굴을 위한 SWOT 분석을 실시함
- 대청동의 내부요인 중 강점(Strength)으로는 대전광역시와의 접근성, 대전광역시의 많은 인구 및 산업체, 자연환경 및 관광자원 보유, 유희자산, 농사 경험 및 지식 등이 있음
 - 대청동의 위치는 대전광역시 동구에 있으며 대전역에서 자가용으로 20분,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도 자가용으로 30분 이내로 도착할 수 있어 접근성이 높음
 - 2023년 4월 기준 대전광역시의 인구는 1,445,214명이며, 2023년 1분기 대전광역시의 산업단지(대전산단, 대덕산단, 대덕특구, 하소산단, 대덕테크노벨리) 내 등록된 업체는 2,007개로 (대전광역시, 2023) 대청동 인근의 많은 인구 및 사업체를 활용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 대청동에는 대청댐 준공으로 형성된 대청호에 수자원보호구역 규제 적용으로 자연환경이 보존되고 있으며, 대청호자연수변공원, 대청호 오백리길, 식당산 등의 관광자원을 보유 하고 있음
 - 다수의 대청동 주민은 옥수수, 포도, 마늘, 고구마, 매실, 밤, 대파, 호박, 양파, 버섯 등의 농작물 재배로 수입을 창출하고 있어 농사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음
- 대청동의 내부요인 중 약점(Weakness)으로는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적용, 인구 고령화 및 지역소멸 위기, 지목면적 현황 등이 있음
 - 대청동 전체 면적의 96.5%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상수원관리규칙에 허용이 가능한 것으로 명시된 시설물 외에는 건축물과 공작물의 설치와 용도변경이 불가능함
 - 대청동 인구 중 39.5%가 65세 이상으로 인구 고령화 현상이 심각하며, 20년 전과 비교하여 대청동 인구가 31.7%가 감소하는 등 지역 소멸의 위기가 존재함
 - 대청동 지역은 임야가 59.2%로 산이 대부분이며, 평야가 적고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를 위한 대지의 비율이 낮음
- 대청동의 외부요인 중 기회(Opportunity)는 환경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주요 행위제한 완화, 「대전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허가대상 건축물 확대, 코로나19 위기단계 하양 및 주요 방역조치 전환으로 관광 활성화, 도시농업 관심 증가, 생활인구 및 관계인구 등 새로운 인구개념의 확대 등이 있음

- 대전광역시 동구 및 대덕구 일대는 2013년부터 하수도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상수원관리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18년 공공 하수관로가 준공되면서 환경정비구역이 확대됨
-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에 따라 대청동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택 신축 및 증축(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 주민 한정), 음식점 증축 및 용도변경(원거주민 한정) 규제가 완화된 지역이 확대됨
- 2023년 4월 「대전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으로 농림 어업 취수시설, 농림업 체험·실습시설, 지역특산물 판매장 등 7가지 건축물 설치가 가능해졌으며, 특히 전국 최초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스마트팜 방식 작물재배사 설치 및 농림업 체험 실습시설의 허용 연면적이 300㎡까지 가능하여 다양한 농업 체험 실습시설의 설치가 가능함
- 2023년 6월 1일부터 코로나19의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고 격리 및 마스크 착용 등 주요 방역 조치가 전환되는 등 2020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약 3년 5개월 만에 일상생활 방역 규제가 완화됨⁶⁾
- 코로나19 방역 규제 완화로 이동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관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021년 기준 전국 도시농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텃밭 수 193,152개로 2020년 92,946개, 2019년 96,986개보다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도시농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⁷⁾
- 경기도 용인시는 2022년 용인시민농장을 기존 8,389㎡에서 4만㎡로 약 3배 이상 확대하는 등⁸⁾ 도시농업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대청호 인근 텃밭을 활용한 도시농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는 생활인구⁹⁾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주 인구 확대가 아닌 인구의 이동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됨(하혜영·류영아, 2022)

6) 질병관리청 보도자료(2023.05.31.).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주요 방역조치 전환”

7) 모두가 도시 농부 홈페이지(<https://www.modunong.or.kr:449/home/kor/main.do>)

8) 경기신문(2022.11.06.). “용인특례시, 용인시민농장 현재보다 3배 규모 확대 조성”(<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724392>)

9)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주민으로 등록된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재외통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한 사람 및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을 의미함(「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 생활인구 및 관계인구를 활용하여 워케이션(worcation)¹⁰⁾, 레지던시 프로그램, 한 달 살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의 생활인구를 늘리는 방식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대청동의 외부요인 중 위협(Threat)은 농촌체험마을 내 외지인 유입에 대한 거부감, ‘충북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 등이 있음**
 - 대청동 내 관광자원인 찬샘마을에는 현재 대청동 외 대전 지역의 소상공인이 참가하여 농촌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림업 체험 실습시설의 허용 면적 증가로 외지인 유입에 따른 환경오염, 원주민과의 갈등, 젠트리피케이션¹¹⁾ 등이 우려됨
 - 충북은 2023년 3월 15일 ‘충북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 발표를 통해 대청호 인근 청주시, 옥천군, 보은군, 영동군 내 상수원보호구역 외 지역에 수상레저 및 수상관광 활성화를 위해 무심천, 미호강 친수공간 조성, 비룡호수 관광단지, 친환경 수상 교통망 구축 등 121개 사업을 실시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¹²⁾
 - ‘충북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대청호 관광객이 ‘충북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으로 집중될 우려가 있음

4. 소결론: 주민 소득증대사업 발굴전략

□ 주민 소득증대사업 발굴전략

- 대청동의 내·외부 요인인 강점(S), 약점(W), 기회(O), 위기(T) 요인을 반영한 소득증대사업 발굴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S-O 전략을 활용한 주민 소득증대사업 발굴전략은 다음과 같음
 - 대전광역시와의 높은 접근성, 도시농업 관련 관심 증가를 반영하여 대도시에 인접한 도시농업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함
 - 도시농업 관련 관심 증가를 반영한 가족 및 공공기관·산업체를 위한 체험농장 확대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함

10) 워케이션이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휴가지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광 및 휴양을 동시에 실시하는 것을 의미함(한국관광공사, 2023)

11)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란 낙후된 주거지역이 급격한 상업화로 주택가격 및 임대료 등이 상승하여 원주민이 교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의미함(진선미·서충원, 2019)

12) 충북일보(2023.03.15.). “충북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청사진 나왔다”(https://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756064)

- 허가대상 건축물 확대 및 대전광역시와의 접근성을 반영한 마을공동작업장 내 주민-농업-농작물을 연계한 판매사업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함
- 환경정비구역 지정으로 음식점 증축이 가능하므로 소규모 카페 및 음식점 확대 전략을 고려할 수 있음
- W-O 전략을 활용한 주민 소득증대사업 발굴전략은 다음과 같음
 - 허가대상 건축물 확대 및 대청동의 좁은 평야, 인구 고령화를 반영한 새로운 농업기술이 적용된 농업 확대 전략이 적절함
 -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으로 지역 간 이동 가능성이 증가하고 새로운 인구 개념이 도입된 상황을 반영하여 기존 주택 신축·증축을 통한 새로운 인구 유입 발굴전략을 고려할 수 있음
- S-T 전략을 활용한 주민 소득증대사업 발굴전략은 다음과 같음
 - 대전광역시 주민 및 접근성을 활용하되, 자연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 전략을 고려할 수 있음
 - 대청호의 자연,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타 관광상품과의 차별화가 필요함
- W-T 전략을 활용한 주민 소득증대사업 발굴전략은 다음과 같음
 - 대청동의 인구 고령화 대응, 지역소멸 방지 및 외지인 유입 증가에 따른 갈등 발생 우려를 고려하여 대청동 주민의 유대감 형성 및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 및 마을기업 육성을 고려할 수 있음

□ 주민 소득증대사업 발굴전략을 반영한 사업 예시

- 대청동 내 찬샘마을 등을 벤치마킹하여 인근 대전광역시 가족, 단체 및 기업 등이 참여하고 대전광역시 동구와 주민이 운영하는 친환경 (주말)농장 및 상수원보호구역 내 도시농업이 가능한 분야인 양봉체험 등을 도시농업 예시로 제시함
 - 도시농업의 다양한 형태 중 하나인 치유농업 및 힐링팜 등을 예시로 제시함
- 타 관광사업과 차별화된 대청호의 역사, 문화자원, 생태, 환경의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린 투어리즘(녹색관광)을 예시로 제시함
- 2018년 환경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주택의 신축·증축이 가능하므로 생활인구 개념을 활용하여 대청동 내 체류인구 증가를 위해 일정 기간 휴식, 관광, 업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레지던시 프로그램 등을 예시로 제시함

- 2023년 4월 시행된 「대전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에는 소득기반시설로 스마트팜 작물재배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구 고령화를 고려하여 투입 노동력 대비 생산성이 높은 스마트팜(시설원예) 작물 재배를 예시로 제시함
- 대청동 주민이 생산한 다양한 소규모의 농산물을 판매하여 소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대청동 마을공동작업장을 활용한 주말한정 농민 장터 및 로컬푸드 직매장 등을 예시로 제시함
- 외지인 유입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로컬푸드 판매장, 친환경 주말농장 운영 등의 수익 창출을 위한 사업 실시와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주민주도의 마을기업 형성을 예시로 제시함

◀ 표 8 ▶ 환경분석 결과 및 주민 소득증대사업 발굴전략

		강점(S)	약점(W)
외부요인	내부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전시와 높은 접근성 대전 인구 및 산업체 활용 가능성 자연환경 유지 관광자원 보유 유휴자산 활용 가능성 농업 경험 및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인구 고령화 지역소멸 위기 지목 현황
	외부요인		
기회(O)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정비구역 지정 허가대상 건축물 확대 코로나19 위기단계 하양 및 관광 활성화 도시농업 관심 증가 새로운 인구개념을 활용한 사업 	S-O 전략	W-O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전시와의 접근성, 많은 인구 및 산업체를 활용한 도시농업 활성화 전략 허가대상 건축물 확대로 유휴자산을 활용한 주민-농업-농작물 연계 전략 소규모 카페·음식점 확대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가대상 건축물 확대, 지목현황 및 인구 고령화를 반영한 신기술 농사기법 확대 전략 기존 주택 신축·증축을 통한 신규 인구 유입 증가 발굴전략
		예시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농업 (친환경 주말농장, 치유농업, 양봉장 등) 로컬푸드 사업(농민 장터, 로컬푸드 직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팜(시설원예) 레지던시 프로그램, 한 달 살기 등 단지 조성
위험(T)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지인 유입 증가로 환경오염, 갈등, 젠트리피케이션 우려 타 관광사업 영향 	S-T 전략	W-T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 관광사업과 차별화 된 자연환경 유지 관광상품 개발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 고령화 고려 및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전략
		예시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청호 역사, 문화자원, 생태, 환경을 활용한 그린 투어리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기업



주민 소득증대사업 사례분석

1. 도시농업

□ 개요

-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생활공간 등을 활용해 농작물, 수목, 화초를 재배하거나 곤충을 사육(양봉 포함)하는 행위를 의미함(「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 과거 도시농업은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한 삶이 지속가능하도록 생활양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개념으로 그 범위가 농작물의 경작 또는 재배로 한정되었으나, 2017년 9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도시농업의 개념이 수목·화초 재배 및 곤충사육·양봉까지 확대되면서 도시농업의 개념이 확대됨(서울특별시 경제정책실, 2021)
- 2011년 4.5만 명이었던 도시농업 활동 인구가 2015년 50만 명, 2020년에는 66만 명으로 증가하는 등 도시농업 활동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서울특별시 경제정책실, 2020)
- 도시농업은 고령화 및 도시화에 따른 공동체의 붕괴, 우울증 및 각종 정신질환 등의 사회 문제를 치유농장 운영, 반려식물 보급 등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통해 힐링과 치유가 되는 등 다양한 기능이 있음¹³⁾
 - 도시농업의 사회적 기능으로는 공동체 문화 회복, 생산적 여가활동, 심신 치유 및 스트레스 해소, 가족 및 이웃과의 소통과 화목 등이 있음
 - 도시농업의 경제적 기능으로는 녹색경제 기반 마련, 건강 증진, 녹색 일자리 창출, 사회문제 해결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이 있음
 - 환경적 기능으로는 자연순환형 도시 생태계 구축, 녹지율 확대 및 생태계 복원, 도시열섬화 및 지구온난화 완화, 생활환경 개선 등이 있음

13) 서울도시농업 홈페이지(<https://cityfarmer.seoul.go.kr/>)

□ 대표사례: 동행서울 친환경농장¹⁴⁾

- 동행서울 친환경농장이란 서울시민이 합성농약 및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건강한 농작물을 직접 재배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농장과 계약한 후 분양하는 친환경 주말농장을 의미하며 2012년부터 시작됨
 - 동행서울 친환경농장은 서울 근교에 시민농장을 마련하여 친환경 도시농업을 체험하고 한강수계의 수질보전 기여와 함께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함
- 총 14개¹⁵⁾의 친환경농장 중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10개 친환경 농장이 운영 중이며 (5,750구획, 1구획 16.5㎡), 참여대상은 서울시민 또는 서울시 소재기관 및 단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매년 4월 초~11월 말까지 운영함
 - 참여비용은 남양주, 양평군, 광주시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친환경 주말농장은 1구역당 4만 원이며 시흥시는 5만 원, 고양시는 7만 원으로 책정됨
 - 개인은 1인 최대 3~4구획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단체(기관)는 참여인원 10명 이상 시 20~40 구획을 신청할 수 있음
- 서울시는 농장과 계약하고 분양하는 역할과 함께 모종, 씨앗, 거름 등 지원, 농업기술센터 영농지도, 소농기구 지원, 친환경농장 유튜브 영상 제작 공유 등을 지원함(서울시 경제정책실, 2020)

◀ 그림 1 ▶ 도시농업 대표사례: 동행서울 친환경농장



출처 : 서울특별시(2022). 내 손안에 서울 홈페이지(<https://mediahub.seoul.go.kr/news/newsMain.do>)

14) 서울도시농업 홈페이지(<https://cityfarmer.seoul.go.kr/>)

15) 경기도 남양주시(3개소), 양평군(4개소), 광주시(3개소), 고양시(3개소), 시흥시(1개소)

□ 대표사례: 세종시 양봉체험¹⁶⁾

- 세종시는 2016년부터 양봉체험을 통해 세종시 시민에게 여가생활을 제공하고 농가·시민이 상생하여 농촌 활력 체험 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관광형 체험 양봉 사업을 운영함
- 모집은 매년 3월 말~4월 초 양봉 및 꿀벌에 관심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신청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며 체험 기간은 매년 4월부터 약 7월 말까지(식용화분 채취 시기~밤꿀 채밀 시기) 매주 토요일에 운영함
- 모집인원은 연간 약 150명이며, 양봉 체험 참가자로 선정되면 시민 1명 당 벌통 1군을 배정 받고 참가자는 매주 토요일 양봉장에서 꿀벌의 생태를 학습하고 벌꿀 수확 체험을 할 수 있으며 체험 기간이 끝나면 양봉 산물로 꿀 약 9.6kg 및 화분 1kg을 제공받음
 - 체험 비용은 1인당 30만 원이며, 30만 원 중 10만 원은 세종시에서 지원하고, 20만 원은 시민이 부담함
 - 체험 기간 중 벌통 및 사양관리는 체험양봉장 및 (사)한국양봉협회 세종시지부에서 전담하여 관리함

◀ 그림 2 ▶ 도시농업 대표사례: 세종시 양봉체험



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https://www.sejong.go.kr/>)

16) 세종시 홈페이지(<https://www.sejong.go.kr/bbs/R0071/view.do?nttlId=B000000089303Qk5fG5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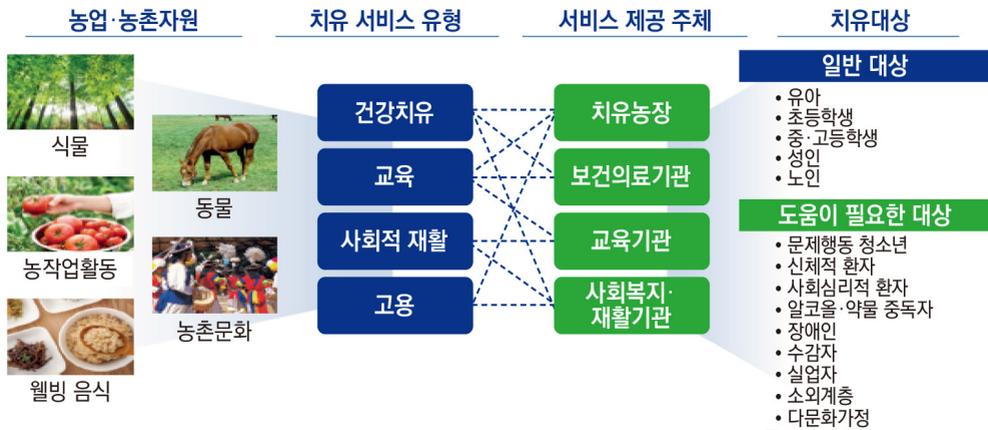
2. 치유농업

□ 개요

-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의미하며(「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농장 및 농촌의 환경·문화를 활용하여 사람의 정신적·신체적·사회적 건강을 도모하는 산업 또는 활동을 나타냄(농촌진흥청, 2021)
 - 최근 ‘치유’와 함께 ‘힐링(Healing)’이라는 용어도 함께 사용함¹⁷⁾
- 2020년 3월「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치유농업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효과 연구 진행 등 지원체계 구축을 진행함
- 2022년 4월 제1차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22~’26)을 통해 총 19종의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검증과 20종의 치유농업 사업 모델 육성, 관련된 1,700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계획을 추진함(농촌진흥청, 2022)
- 치유농업은 농업활동을 통해 치료, 교육, 재활 및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함
 - 치유농업 시설은 개인 농가, 법인체, 공공기관 및 민간조직 등 다양한 주체가 운영할 수 있으며, 치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작물, 가축 등 다양한 농업 분야에서 건강치유·사회적 치유·교육적 치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 국내에서는 농업인, 시민농장, 농업인, 협동조합 등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사회서비스 기관, 지역사회기관 등의 외부기관과 연계함(농촌진흥청, 2021)
- 2021년 기준 전국 치유농업시설은 전국 234개소가 있으며(농장형 191개, 마을형 43개) 지역별 치유농업시설의 운영자를 교육하는 치유농업센터는 2개소(서울시농업기술센터, 경북도농업기술원)가 설치되어 있음(농촌진흥청, 2022)

17) 농사로 홈페이지(<https://www.nongsaro.go.kr/>)

◀ 그림 3 ▶ 치유농업 운영 방법



출처 : 농촌진흥청(2021: 189)

□ 대표사례: 드림뜰 힐링팜¹⁸⁾ 및 제주농촌교육농장¹⁹⁾

- 드림뜰 힐링팜은 전북 완주군 소양면에 위치한 치유농업 농장으로 학교 아동, 치매안심 센터 어르신,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허브 족욕, 꽃바구니 만들기, 미술 치료, 동물과 친해지기 등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제공함
 - 2019년, 2022년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농촌교육농장으로 인증되었으며, 원예교육장, 동물농장, 숲 놀이터 등을 통해 원예치료, 원예교육, 텃밭정원, 생태놀이, 숲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함
 - 2020년 기준 13,000여 명이 힐링팜을 이용함
- 제주농촌교육농장은 공공기관인 농촌진흥청,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센터,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동부농업기술센터, 서부농업기술센터와 제주도 유치원, 초·중·고교 및 지역 커뮤니티로 연합된 치유농장임
 - 제주시 및 서귀포시 내 18개 농장을 연합하여 농촌과 자연에서 발굴된 소재를 활용하여 총 17개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18) 드림뜰 힐링팜 홈페이지(<https://dreamtt-farm.com/>)

19) 제주농촌교육농장 홈페이지(<http://www.xn--9d0bk4fqyepa.com/index.php>)

◀ 그림 4 ▶ 치유농업 대표사례: 제주농촌교육농장 운영 현황



출처 : 제주농촌교육농장 홈페이지(<http://www.xn--9d0bk4fqryepa.com/index.php>)

3. 그린 투어리즘

□ 개요

- 그린 투어리즘(녹색관광: Green Tourism)이란 농촌의 자연경관, 전통문화, 생활 및 산업을 활용하여 도시민과 농촌주민이 교류하는 체류형 여가활동을 의미함
- 농가가 숙박시설 제공, 음식 및 특산물 개발, 농사체험 프로그램 및 이벤트를 운영하여 농촌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농촌관광전략을 의미함
 - 그린 투어리즘은 1960년대 영국·프랑스·이탈리아 등 유럽을 중심으로 도시에서 벗어나 자연 및 농촌에서 여가활동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관심이 증가하였으며, 이후 1990년대 초 일본이 농촌환경 보전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그린 투어리즘 정책을 진행함
 - 그린 투어리즘의 대표적인 정책 사례로는 영국의 팜 할러데이(Farm Holiday), 프랑스의 민박 지트(Gtes), 일본의 팜 인(Farm Inn) 등이 있음²⁰⁾

20)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https://www.moef.go.kr/sisa>)

- 국내에서는 2008년 8월 녹색성장을 미래 국가비전으로 제시하면서 녹색관광을 정책용어로 사용하기 시작함
 - 유사한 개념으로는 농촌관광(rural tourism), 농장관광(farm tourism), 자연관광(nature tourism), 생태관광(ecotourism) 등이 있으나 그린 투어리즘은 실천적인 관광 형태로 환경, 사회, 문화, 경제의 지속성과 함께 관광시설 개발을 통한 관광산업의 성장을 추구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그린 투어리즘의 원칙으로는 환경의 지속성(환경보전, 친환경 등), 사회·문화의 지속성(지역성 유지, 커뮤니티 활용), 경제의 지속성(일자리 창출, 주민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후의 지속성(에너지 및 자원 순환 등)이 있음
 - 그린 투어리즘은 자연, 생태, 역사, 문화 등 지역의 자연을 기반으로 체험형, 교육형 관광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참여를 도모하는 관광 활동이라는 특징이 있음(문화체육관광부,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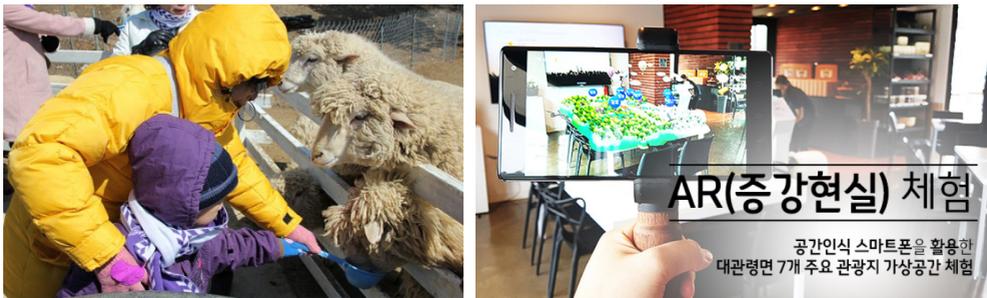
□ 대표사례: 평창군 의야지 바람마을²¹⁾

- 평창군 의야지 바람마을은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해발 750~800m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체 농가가 약 50가구인 작은 산촌마을로 마을 내 1급수의 하천이 흐르고 있는 학습장과 휴양지가 포함된 마을임
 - 마을 내 농촌체험 프로그램과 바람마을 장터, 꽃밭양지길이 구성되어 체험과 상품구매, 관광이 가능한 사례임
- 의야지 바람마을을 강원도의 자연경관, 양 목장, 황태 등을 활용하여 마을 주민이 관광 상품과 특산물을 개발하여 평창군의 환경을 보전하고 마을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을 진행함
- 2004년 12월 주민의 마을기금 및 출자금을 통해 종합 눈놀이 시설인 ‘스노우 파크’ 조성을 시작으로 마을에 있는 자원과 주민이 잘 할 수 있는 것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함
 - 총 3만 평의 넓은 터전에 다양한 사계절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도난 공장을 활용하여 사무실 및 창고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함
 - 꽃밭양지 셀프웨딩, 치즈만들기 체험, 4륜 ATV 체험, 양몰이개 체험, 인접한 대관령 풍력 발전단지 트래킹 코스를 운영함

21) 평창 의야지 바람 마을 홈페이지(<https://windvil.invil.org/>)

- 관광자원인 꽃밭양지길을 활용하여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체험 관광지별 게임을 체험하고 상품을 획득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

◀그림 5▶ 그린 투어리즘 대표사례: 평창군 의아지 바람마을



출처 : 평창 의아지 바람 마을 홈페이지(<https://windvil.invil.org/>)

4. 레지던시 프로그램

□ 개요

- 과거 농촌 관광객은 당일 또는 2~3일 내외의 일정으로 농촌을 체험하고 귀가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농촌에서 장기간 체류하는 농촌관광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대표적인 사례는 2011년 이후 제주를 시작으로 현 거주지 및 고향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숙박시설을 임대하여 장기 체류하면서 휴식, 관광,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한 달 살기’가 있음(김소윤 외, 2016)
- 레지던시 프로그램(residency program)이란 예술가의 아이디어 및 상상력 개발, 예술가 상호 간 교류를 위해 재정적인 지원 외 예술가에게 작업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창작 공간, 예술마을 등의 용어와 혼용되고 있음
 -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기간은 몇 주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이어지며 예술가들의 휴식과 정서적 재충전을 지원하기 위함(신란희, 2018; 하명구·이규홍, 2020)
-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운영 목적에 따라 ‘창작 중심형’, ‘프로젝트형’, ‘지역 중심형’, ‘교류 협력형’ 레지던시 프로그램으로 구분됨(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신란희, 2018)

- 창작 중심형 레지던시는 일반적인 레지던시의 설립 목적으로 예술가 및 작가가 거주하며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 프로젝트형 레지던시는 프로그램 기획자를 중심으로 예술가와 기획자가 단발성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를 의미하며 도심 재개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공간을 예술가가 레지던시로 활용하는 등의 형태가 있음
- 지역 중심형 레지던시는 지역에 기반을 두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지역사회와 교류하는 프로그램으로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유휴 공간을 개조하며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함
- 교류협력형 레지던시는 예술가를 초청하여 작업공간을 제공하는 것 이상으로 관련 전문가와 교류 및 소통을 통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의미함

□ 대표사례: 가파도 AIR(Artist In Residence)²²⁾

- 가파도는 제주도 4개의 부속섬 중 하나로 제주도와 마라도 사이에 위치하며, 총 93세대 177명이 거주하고 있는 섬임²³⁾
- 가파도 AIR은 2012년 새로운 자연, 경제, 문화적 생태계를 구성하는 제주도의 ‘가파도 프로젝트’를 통해 시작되었으며, 빈집을 숙박시설로 개조하고 기존 건물을 활용해 가파도와 어울리는 건물을 건축하는 등 문화·예술품의 생산을 통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을 통해 성장함²⁴⁾
- 가파도 AIR는 지역 주민의 일상을 풍요롭게 하고 예술가들에게는 자연환경 속에서 작업에 집중할 수 있는 창작 공간을 제공함
 - 예술가들이 작업할 수 있도록 면적 53㎡의 작업실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와 함께, 취사, 회의 및 휴식을 위한 면적 107㎡의 커뮤니티 라운지 및 예술가의 숙소가 마련되어 있음
- 2022년 기준 해외 예술가 2명과 국내 예술가 4명이 가파도 AIR에 입주해 있으며 국제적인 미술관 큐레이터 및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의 자문을 통해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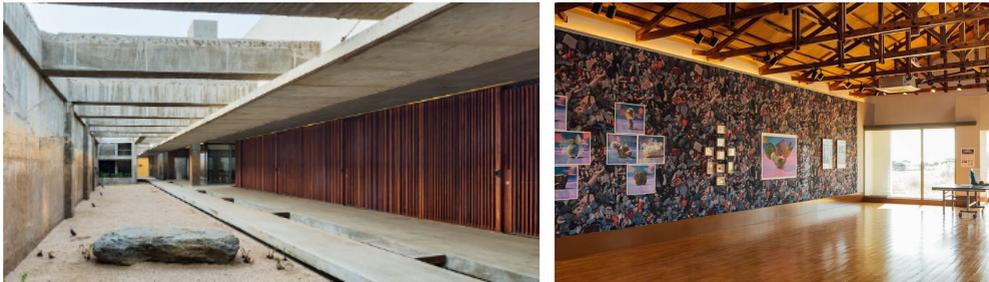
22) 가파도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홈페이지(<http://gapadoair.kr>)

23) 제주도 관광정보 포털(<https://www.visitjeju.net/kr/>)

24) 동아일보(2018.04.17.). 그 섬에 예술이 자란다, 캔버스가 된 가파도(<https://www.donga.com/news/Culture/article/all/20180417/89642762/1>)

- 제주문화예술재단은 가파도 AIR에 입주한 작가의 창작 활동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입주한 작가는 작가전, 지역 특수성을 부각하는 기획 행사 및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진행함

◀ 그림 6 ▶ 레지던시 프로그램 대표사례: 가파도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출처 : 가파도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홈페이지(<http://gapadoair.kr>)

□ 대표사례: 일본 가미야마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KAIR: Kamiyama Artist in Residence)²⁵⁾

- 일본 KAIR 프로그램은 일본 가미야마 마을에서 예술과 문화를 발전시키고자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는 프로젝트를 의미함
 - 1999년 예술가와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일본의 소도시 생활을 경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됨
- 매년 9월부터 11월까지 약 2개월 간 3~5명의 예술가가 체류하면서 지역주민과 교류하며 체류 후에는 전시, 지역학교 워크숍, 문화행사 참여, 오픈스튜디오 데이 등의 행사를 진행함
 - 예술가는 지역주민의 집에 머물면서 지역주민의 도움을 받아 작업함
 - 일본의 다양한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프로그램 중 예술가와 지역주민이 상호협력하여 지역주민이 직접 창작물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음
 - KAIR의 지속적 성장으로 가미야마 마을은 예술가 그룹 및 개인에게 필요한 숙소와 작업 공간을 무료로 제공함

25) 가미야마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홈페이지(<https://www.in-kamiyama.jp/>)

◀ 그림 7 ▶ 레지던시 프로그램 대표사례: 가미야마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출처 : 가미야마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홈페이지(<https://www.in-kamiyama.j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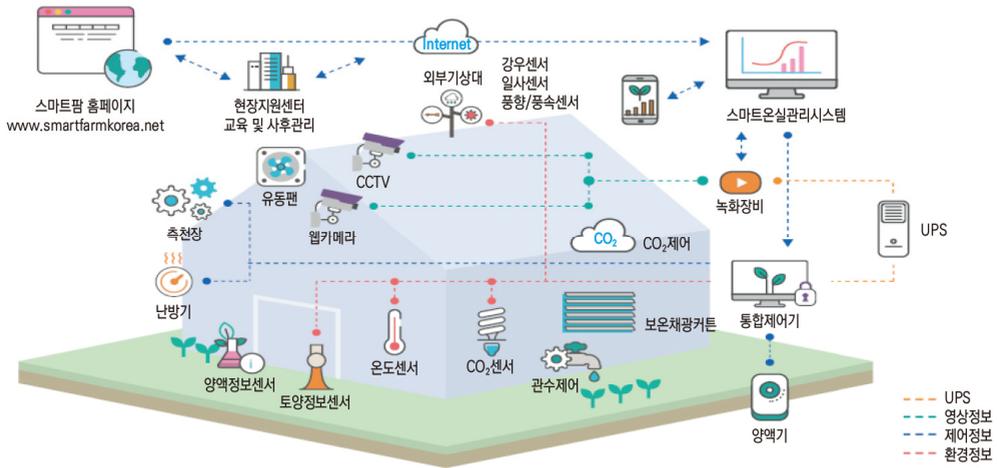
5. 스마트팜

□ 개요

- 스마트팜이란 사물인터넷(IoT), 로봇,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기술을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등의 시설원예, 축사에 접목하여 작물과 가축의 생산환경을 자동 및 원격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의미함(관계부처 합동, 2021)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농업도 혁신성장 산업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 11월 혁신성장 핵심 선도사업 중 하나로 스마트팜을 선정함
- 스마트팜 및 스마트 농업은 농업 인구의 고령화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농업의 생산성과 편의성 향상을 위해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
 - 전국 농가 중 65세 이상의 경영주 비중은 2010년 46.4%에서 2015년 53.4%, 2019년에는 62.0%로 증가하여 노동력이 부족하고 생산성이 낮아지고 있음(관계부처 합동, 2021)
- 스마트팜은 품목을 기준으로 시설원예(토마토, 파프리카, 딸기, 오이 등), 과수(복숭아, 사과, 포도 등), 축산(한우, 양돈, 낙농, 양계), 수직농장(특수야채, 허브 등), 노지채소(양파 등)로 구분할 수 있음(농림축산식품부, 2022)
 - 일반적으로 시설원예를 ‘스마트팜’, 노지작물·과수를 ‘노지스마트팜’, 축산을 ‘스마트 축사’라 함

- 2020년 기준 스마트팜(시설원예) 품목 중 딸기, 참외, 토마토, 파프리카 4개 품목이 전체 품목의 81.1%를 차지하고 있어 스마트팜은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높고 자동화가 잘 구현되는 일부 품목에 집중됨(국회예산정책처, 2022)

◀ 그림 8 ▶ 스마트팜 구성(시설원예분야)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2022: 154)

- 스마트팜의 장점으로는 첫째, 최적화된 농업환경 제공으로 투입 노동력 대비 생산성 향상, 둘째, 첨단 통제시스템을 활용한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셋째, 인근지역 주민 고용 증가 및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넷째, 병충해·질병 감소 및 불필요한 양분공급 감소로 환경 부담이 완화됨

- 특히 첨단 시스템을 통해 좁은 면적에서도 효율적으로 농산물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음(관계부처 합동, 2018)

□ 대표사례: 포천딸기힐링팜²⁶⁾

- 포천딸기힐링팜은 첨단 ICT스마트팜에서 딸기를 재배하는 체험교육농장으로, 포천시 교육지원청 컨설팅을 통해 경기도 8대 체험학습 체험처로 선정되는 등 포천시 최대 규모의 스마트팜임

26) 포천딸기힐링팜 홈페이지(<http://포천딸기.net/>)

- 포천딸기힐링팜은 온실 내 지상부 복합환경제어 및 클라우드서비스 기반의 스마트팜 적용을 통한 최적 생육환경을 유지하며,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온실의 온·습도, 이산화탄소 등을 모니터링하며 원격 자동으로 제어하여 재배하는 기술을 활용하여 딸기 재배 및 체험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함
- 식물성장용 LED를 적용하여 식물 광합성에 필요한 파장LED를 조절하여 작물 생육 최적화 환경을 조성하며, 첨단 ICT 행잉베드 재배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존 재배시설 대비 150%의 공간 활용 효과를 가짐
-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딸기 재배 체험 교육 및 농림축산식품부 귀농귀촌종합센터와 귀농귀촌을 시작한 사람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귀농다터 프로그램을 운영함

◀ 그림 9 ▶ 스마트팜 대표사례: 포천딸기힐링팜



출처 : 포천딸기힐링팜 홈페이지(<http://포천딸기.net/>)

6. 로컬푸드 사업

□ 개요

- 로컬푸드(Local Food)란 장거리의 수송과 다단계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는 지역 내에서 생산된 농식품을 의미하며 그 지역의 범위는 국가 및 사람마다 다르게 규정되지만,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반경 50km 이내에서 생산된 농식품을 의미함(국립농업과학원, 2021)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생산·가공된 농산물로서 해당 지역에서 유통·판매되는 것”으로 지역농산물을 정의함

- 표준 농산물의 소비·유통단계가 농가(생산)-도매-중매-소매-소비자 구조라면 로컬푸드의 소비·유통단계는 농가(생산)-지역통합물류센터-소비자 구조로 소비·유통단계가 짧고 단순하여 신선한 먹거리 공급이 가능함
 - 생산지에서 수확 후 소비자까지 유통되는 기간은 표준 농산물이 평균 3~6일이지만 로컬푸드는 평균 0.5~1일로 짧음²⁷⁾
- 2016년 ‘제1차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17~21)’ 수립 이후 직거래 인프라가 확대되어 로컬푸드 직매장 전체 시장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로컬푸드 직매장은 설치지원을 통해 전국적으로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188개에서 2021년 778개로 증가함
 - 농업인 및 소비자의 관심 증가, 직매장 지원 확대 등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거래액이 2017년 3,565억 원에서 2021년 8,970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코로나19 발병 이후에도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농림축산식품부, 2022)
- 로컬푸드 사업의 유형은 농민장터, 로컬푸드 직매장, 공동체 지원 농업, 학교급식 등 4가지로 분류됨(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남윤철, 2017)

◀ 표 9 ▶ 로컬푸드 유형 및 특징

유형	특징
농민 장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해진 날짜에 농민이 특정 장소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직접 진열 및 판매하는 형태 • 로컬푸드의 전형적인 형태 • 인근에서 생산된 소량 및 다품목 농산물 거래(소규모 농민 활용 적합) • 상업적 유통 경로로 판매가 어려운 가공품(소규모 농가)도 거래 가능
로컬푸드 직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매장에 농민이 농산물을 직접 진열하면 운영주체가 판매 후 정산하는 형태 • 농협의 로컬푸드 직매장(대표 사례) 및 생산자단체 법인 등 운영
소비자-농민 농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농민(생산자)과 소비자가 계약을 통해 농산물을 공급하는 형태 • 농민이 직접 배송하는 형태 또는 택배를 활용하는 형태 등 다양하게 운영 • 농민은 다품목 소량 농산물 꾸준히 공급 가능 및 소비자는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을 편리하게 구매 가능
학교급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 초·중·고교 급식에 공급하는 형태

주 : 소비자-농민 농업은 ‘공동체 지원 농업’, ‘밥상 꾸러미’, ‘제철 꾸러미’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됨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2), 남윤철(2017: 45) 재구성

27) 바로정보 홈페이지(<https://www.baroinfo.com/>)

□ 대표사례: 리버마켓²⁸⁾

- 리버마켓(rivermarket)은 시중에서 대량 유통되는 물건을 판매하는 시장이 아닌 판매자가 직접 생산한 물건을 판매하는 시장을 의미함
 - 리버마켓은 판매자가 직접 리버마켓 개설 일자에 참여 신청을 하여 물건 판매에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하며, 토-일(주말)에만 운영하는 리버마켓과 매일 운영하는 매일상회 두 가지 형태가 있음
- 주말에만 운영하는 리버마켓은 2016년 경기도 양평군에서 시작되어 2023년 4월 기준 문호리, 한탄강(경기도 포천시), 자라섬(경기도 가평군), 곤지함(경기도 광주시), 태백철암(강원도 태백시), 예스파크(경기도 이천시), 양양(강원도 양양군) 총 7곳이 존재함
- 매일 운영하는 매일상회는 2021년 2월 6일 문호리에서 시작함

◀ 그림 10 ▶ 로컬푸드 사업 대표사례: 리버마켓



출처 : 리버마켓 홈페이지(<https://www.rivermarket.kr/>)

7. 마을기업

□ 개요²⁹⁾

-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소득 및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이익 실현 등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 및 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을 의미함

28) 리버마켓 홈페이지(<https://www.rivermarket.kr/>)

29) 행정안전부(2023).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 마을기업은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출자한 법인을 의미하며,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및 기업성의 특징을 가짐
- 행정안전부는 2021년 5월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통해 ‘1마을, 1마을 기업’을 육성하여 향후 10년 동안 총 3,500개의 마을기업 확대를 추진함
- 2021년 12월 기준 전국에 총 1,697개의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경기도 201개로 가장 많으며, 전남 189개, 충남 148개, 경북 136개 순임³⁰⁾

● 마을기업의 운영원칙은 다음과 같음

- 마을기업은 구성 및 운영을 위해 공동체 중심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주적인 운영 및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기반으로 공동체 회복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
- 협력과 호혜를 기반으로 지역 내 다양한 공헌과 상생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며 공익적 및 공공적 가치를 창출함
-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 사람이 주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내 인력 및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활성화에 기여함
- 시장 경쟁력이 있는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 창출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함

◀ 표 10 ▶ 마을기업의 요건

요건	내용
공동체성	• 공동체가 주도 및 출자하여 기업을 설립하고 공동체가 기업 설립 및 운영에 참여하고 결정해야 함
공공성	• 마을기업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공헌 및 상생해야 함
지역성	•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읍·면·동 동일한 생활권 기반의 거주 주민이 참여해야 함
기업성	• 지속가능한 수익구조를 통해 정부 및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종료되어도 자립·운영할 수 있어야 함

자료 : 행정안전부(2023: 4-7)

● 마을기업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지역자원 활용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및 마을 관리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지역자원 활용형 마을기업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로컬푸드 유통, 지역특산물 가공, 관광·체험 등의 사업을 수행함

30)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s://mois.go.kr/>)

- 사회서비스형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에게 교육 및 복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공동육아, 방과후 학교, 노인돌봄 등을 수행함
- 마을 관리형 마을기업은 지역재생, 마을자산 운영 등 마을의 공동 이익 또는 마을 발전을 위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다른 마을기업을 지원함

□ 대표사례: 로컬푸드를 활용한 마을기업 사례³¹⁾

- 2011년에 개장한 문양역 로컬푸드 직매장은 대구도시철도 2호선 문양역 1층에 위치하여 전국 로컬푸드 직매장 중 유일하게 지하철 역사에 위치함
 - 매일 아침 지역 농민이 수확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곳으로 농민 350여 명이 함께 운영하며, 농산물 판매와 함께 농산물 체험 행사, 매년 김장 담그기 행사 등을 운영함
 - 수익의 일부분은 지역사회에 기부하여 문양역 인근 동에 거주하는 소외계층에게 식품, 생활용품, 성금 등을 전달하여 상생을 실천하고 있음
- 2019년 안면도에 개장한 태안 로컬푸드 직매장은 해양 관광지와 근접한 매장으로 농산물과 수산물을 통합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외 관광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지역주민 및 농산물가공품업체 등 총 700여 농가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태안 지역의 고령 농가와 안정적인 직거래망을 구축하고 농민이 꾸준히 농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농가 조직화를 통해 정기적인 직거래 장터를 운영함
 - 수익의 일부분을 사회적 약자 및 소외된 이웃을 위해 태안지역자활센터의 푸드뱅크에 기부하고 있으며, 안면읍 및 태안읍의 맞춤형 복지팀과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 등에 식품을 기부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함
- 2019년 청양군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먹거리 정책인 '청양푸드플랜'을 수립하고 생산에서 소비까지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다양한 사업을 운영 중임
 - 청양군은 인구 3만 1천 명이며, 농민은 1만 2천 명으로 소비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 최초 생산지가 아닌 소비지인 대전시 유성구에 청양먹거리 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함

31)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21)

- 청양군 10개 읍·면의 730여 명이 생산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매일 청양의 농산물을 약 60km 떨어진 거리의 대전까지 운송한 뒤 판매함
- 청양먹거리 직매장에는 마을협동조합과 연계하여 운영 중인 카페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및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농촌체험, 생태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

◀ 그림 11 ▶ 마을기업 대표사례: 로컬푸드직매장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21: 211, 222)

주민 소득증대사업 도출: 주민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1. 주민 인식조사 개요

- 본 인식조사는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동 주민의 소득증대사업 연구를 위하여, 대청동 주민의 현황과 지역 여건 및 대청호에 적용되는 규제를 반영한 주민 소득증대사업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
- 조사의 내용은 주민 소득증대사업 발굴전략을 통해 도출된 주민 소득증대사업 사례에 대한 대청동 주민의 선호도와 현실가능성 및 기타 자유 의견으로 구성함
 - 주민 소득증대사업 사례는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도시농업을 친환경 주말농장, 양봉장 및 양봉체험장으로 구분하고 그린 투어리즘은 대청호 자연관광 마을 조성, 로컬푸드 사업은 농민 장터로 변환하여 조사를 실시함
 - 총 8가지 사업(① 친환경 주말농장, ② 양봉장 및 양봉체험, ③ 치유농업 및 힐링팜, ④ 자연관광 마을, ⑤ 예술마을(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⑥ 스마트팜, ⑦ 농민 장터, ⑧ 마을기업(협동조합, 농산물 직매장 운영)에 대해 리커트(Likert) 5점 척도를 활용하여 주민 선호도와 현실가능성을 조사함(1점 매우 낮음~5점 매우 높음)
- 본 인식조사는 2023년 6월 7일 대청동 다목적회관에서 실시한 통장협의회 중 실시하였으며, 17명의 대청동 통장 및 2명의 지역 공무원 등 총 19명이 응답하였음
 - 응답자 19명 중 남성은 15명(78.9%), 여성은 4명(21.1%)이며, 연령대는 60대가 7명(36.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50대와 70대 이상이 각각 5명(26.3%), 30대 이하 및 40대가 각각 1명(5.3%) 순으로 나타남
 - 대청동 거주 기간은 10년 이상이 15명(78.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년 이하가 2명(10.5%), 4~6년 이하 및 7~9년 이하가 각각 1명(5.3%)으로 나타남

2. 주민 인식조사 결과

□ 주민 선호도 및 현실가능성 인식조사 결과

- 총 8가지 사업에 대한 대청동 주민의 선호도 및 현실가능성에 대한 인식조사를 한 결과 선호도 및 현실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한 사업은 농민 장터, 친환경 주말농장, 자연관광 마을 등으로 나타났으며, 선호도 및 현실가능성이 낮다고 인식한 사업은 양봉 및 양봉체험, 예술마을, 마을기업 등으로 나타남

◀ 표 11 ▶ 주민 소득증대사업 선호도 및 현실가능성 인식조사 결과

(단위 : %, 점)

구분	선호도							현실가능성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평균	순위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평균	순위
친환경 주말농장	5.3	5.3	15.8	21.1	52.6	4.11	2	10.5	0	0	26.3	63.2	4.32	1
양봉 및 양봉체험	36.8	15.8	26.3	5.3	15.8	2.47	8	31.6	5.3	26.3	26.3	10.5	2.79	8
치유농업 및 힐링팜	21.1	5.3	15.8	21.1	36.8	3.47	5	21.1	0	15.8	31.6	31.6	3.53	3
자연관광 마을	10.5	5.3	10.5	15.8	57.9	4.05	3	21.1	15.8	5.3	5.3	52.6	3.53	3
예술마을	15.8	15.8	15.8	15.8	36.8	3.42	6	21.1	15.8	15.8	15.8	31.6	3.21	6
스마트팜	15.8	5.3	5.3	36.8	36.8	3.74	4	10.5	21.1	10.5	21.1	36.8	3.53	3
농민 장터	10.5	0	5.3	31.6	52.6	4.16	1	0	10.5	15.8	15.8	57.9	4.21	2
마을기업	15.8	10.5	26.3	10.5	36.8	3.42	6	21.1	21.1	21.1	5.3	31.6	3.05	7

- 친환경 주말농장의 선호도는 평균 4.11점(5점 만점)으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현실가능성도 4.3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대청동 주민은 농사에 대한 많은 경험과 지식으로 친환경 주말농장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현실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식함(89.5%)
 - 기존 농사의 계속성이라는 장점과 관광객 증가라는 기대가 반영되어 선호도와 현실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됨
 - 기타 의견으로는 현재 대전광역시 동구청의 증제로 일부 주민이 친환경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소득 대비 주말농장 운영 및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이 있음

- 양봉장 및 양봉체험은 선호도 8위(2.47점) 및 현실가능성 8위(2.79점)로 나타남
 - 특히, '매우 낮음'에 대한 응답으로 선호도는 36.8%, 현실가능성은 31.6%로 8개 사업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대전광역시 동구는 현재 대청동 인근에 총 150명 모집 및 참여비용 20만 원(10만 원 시민, 10만 원 지원)인 시민체험양봉장 1곳을 운영하고 있음
 - 시민체험양봉장이 운영되고 있지만, 주변 농사를 위한 농약 살포의 영향으로 양봉의 어려움이 있어 주민의 선호도와 현실가능성이 낮게 나타났으며, 과거 존재하던 양봉장도 현재 대부분 폐업한 상태임
- 치유농업 및 힐링팜의 선호도는 5위(3.47점)로 상대적으로 순위가 낮으나 현실가능성은 3위(3.53점)로 높게 나타남
 - 친환경 주말농장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판단하여 현실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였으나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담 등으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됨
 - 기타 의견으로는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치유농장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대전광역시 동구 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와 연계한 치유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대청동 마을을 치유농업 특화 마을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와 함께, 외지인이 대청동에 유입되어 치유농장을 운영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함
- 자연관광 마을 조성은 선호도(4.05점) 및 현실가능성(3.53점)이 모두 3위로 높게 나타남
 - 특히, 선호도에서 '매우 높음'이 8가지 사업 중 가장 높게 나타나(57.9%) 대청동 주민은 관광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함
 - 기타 의견으로는 단순 자연관광이 아닌 치유농업 및 힐링팜을 강조한 특화된 자연관광 마을 조성과 함께,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도록 캠핑장 설치 또는 민박 운영을 위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예술마을은 선호도(3.42점) 및 현실가능성(3.21점)이 모두 6위로 나타남
 - 선호도와 현실가능성에서 모두 6위로 나타나 8개의 사업 중 상대적으로 순위가 낮으나 대청동 주민들은 젊은 세대가 대청동으로 유입되기 위해서는 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함

- 기타 의견으로는 과거 벽화마을 조성 등의 사례에서 나타난 문제점인 외지에서 유입된 예술가와 원주민 간의 갈등, 지원금 취득 후 활동 중단 등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함
- 스마트팜은 선호도 4위(3.74점) 및 현실가능성은 3위(3.53점)로 나타남
 - 스마트팜의 현실가능성을 낮게 인식(매우 낮음+낮음)한 비율은 31.6%로 나타났는데, 그 원인으로는 대청동 내 농지가 많지 않고 농지의 형태도 소규모 및 부정형인 농지가 많아 스마트팜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기타 의견으로 제시함
- 농민 장터는 선호도가 4.1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현실가능성도 4.21점으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 특히 농민 장터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고 인식한 비율(매우 높음+높음)이 84.2%로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으로 나타났으며, 현실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인식한 비율이 0%로 나타나 선호도 및 현실가능성을 고려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됨
 - 기타 의견으로는 현재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대청동 주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 규모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추가 공간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함
- 마을기업은 선호도 6위(3.42점) 및 현실가능성 7위(3.05점)로 나타남
 - 특히 8개 사업 중 현실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한 비율(매우 높음+높음, 36.9%)보다 낮다고 인식한 비율(매우 낮음+낮음, 42.2%)이 더 높은 유일한 사업임
 - 기타 의견으로는 현재 일부 대청동 주민을 중심으로 마을기업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효과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 기타 자유 의견 결과

- 기타 자유 의견을 종합하면 8가지 사례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 및 사례 사업 외 기타 소득 증대사업의 개선방안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대청동 주민은 농지 특성상 농사를 활용한 소득증대사업 대신 대청동의 장점인 대청호 및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 관련 소득증대사업을 선호함
- 청소년수련관, 공무원 연수원 등의 공공기관 이전·설치와 상업적 목적이 아닌 교육·관광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함

- 젊은 세대가 대청동으로 유입되어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시설, 문화기반시설 및 관광시설 등 생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 및 추진의 필요성을 제기함
- 특히, 관광객이 숙박할 수 있는 캠핑장 또는 민박 사업을 가장 선호하고 있으나,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숙박 관련 사업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다른 형태의 사업을 통해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는 소득증대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표 12 ▶ 주민 소득증대사업에 대한 기타 자유 의견

구분	내용
사례 사업 개선방안 등 기타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 주말농장: 대전광역시 동구청에서 대전 시민과 대청동 주민 간 주말농장 운영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평당 단가가 낮음 • 친환경 주말농장: 지원 금액(단가) 대비 주말농장 운영에 많은 시간과 노동력이 투입되는 등 관리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주말농장 비용 증대가 필요함 • 양봉장: 주변 농가의 농약 사용으로 양봉이 불가능함(과거 양봉장 현재 폐업) • 치유농업 및 힐링팜/자연관광 마을: 주변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치유농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주변 초·중·고교와 연계한 치유농장 마을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치유농업 및 힐링팜/자연관광 마을: 외지인에 의한 치유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예술마을: 현지인도 문화 사업에 대한 관심이 많으나 과거 유사 사례에서 나타난 외지인과의 갈등(현지인과의 소통 부족, 지원금 취득 후 활동 중단 등). 지속성 부족 등의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스마트팜: 스마트팜을 설치할 수 있는 농지 부족, 오·폐수 시설 설치 등의 문제가 있음 • 농민 장터: 대전광역시 동구청에서 농산물 판매를 위해 공간을 지원하고 있으나 규모나 공간이 충분하지 않음(마을 공동작업장 활용 필요) • 마을기업: 현재 일부 대청동 주민을 중심으로 마을기업이 운영 중이지만 효과성이 부족함
기타 소득증대사업 관련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청동은 농지가 많지 않고 소규모 및 부정형인 농지가 많아 대규모 농사 및 작물 재배가 불가능하므로 농사를 활용한 소득증대사업은 실효성이 낮음 • 대청동의 장점인 대청호와 자연환경을 활용할 수 있는 관광사업이 가장 필요함 • 농민 장터, 예술마을 활성화 등으로 증가하는 관광객 대상 푸드트럭 운영이 필요함 •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인 캠핑장 및 민박 허용(현재 상수원보호 구역 내 금지)이 가장 시급함 • 청소년수련관, 공무원 연수원 등의 공공기관 이전 및 설치와 상업적 목적이 아닌 교육·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함 • 대청동의 문제점인 노령화를 해결할 수 있는 젊은 세대 인구 유입 방안과 젊은 세대가 정착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사업 구상이 필요함 • 자연 친화적인 사업과 함께, 젊은 세대가 유입될 수 있도록 주거시설, 문화기반시설, 수익 창출 기반 마련 등 지역의 활동성 제고를 위한 생활환경 개선이 필요함 • 타 지역과 주민 관광 및 교육 등 교류 업무협약(MOU)을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3. 소결론: 주민 소득증대사업 유형 도출

- 대청호 주민의 선호도, 현실가능성 및 기타 의견을 반영하여 대청호 유역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네 가지 사업 유형을 도출함

◀ 표 13 ▶ 주민 소득증대사업 유형

현실가능성 \ 선호도	높음	낮음
높음	I 유형(우선 추진 사업) 농민 장터 친환경 주말농장	II 유형(추진 사업) 치유농업 및 힐링팜 스마트팜
	낮음	III 유형(추진 고려 사업) 자연관광 마을 예술마을 청소년수련관 등 교육기관 유치 타 지자체와 교류 업무협약 캠핑장 및 민박 조성

- I 유형은 대청동 주민의 선호도와 현실가능성이 모두 높은 사업으로 농민 장터, 친환경 주말농장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구성됨
 - I 유형에 포함된 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내에서 추진이 가능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거 추진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임
 - 대청동 주민의 현재 주요 소득원인 농업을 활용하여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선호도와 현실가능성이 모두 높게 나타남
 - 기존 농업의 형태를 개선하는 것으로 새로운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의 부담감 감소와 농업 지속에 따른 농산물 판매로 소득이 증가할 수 있음
 - 특히 대전광역시 및 인근 주민의 접근성이 높으므로 농민 장터와 친환경 주말농장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문제점으로 지적된 지원 금액 부족, 판매 공간 확대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의 개선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

- II유형은 대청동 주민의 선호도는 낮지만 현실가능성이 높은 사업으로 치유농업 및 힐링팜, 스마트팜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구성됨
 - II유형에 포함된 사업 역시 I 유형의 사업과 동일하게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내에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며, 특히 스마트팜은 최근 설치가 허용되어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새롭게 추진할 수 있음
 - 친환경 주말농장에 치유 프로그램 적용으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으며, 신규 농업 시설·장비 설치로 농업의 생산성과 편의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음
 - 친환경 주말농장과 치유농업을 접목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및 인근 주민에게 다양한 형태의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다만, 치유 프로그램 지식 습득, 새로운 수요 창출을 위한 홍보 및 신규 농업 시설 설치 비용 발생 등의 부담감이 주민의 선호도에 반영되었으므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과 지자체 간 협력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III유형은 대청호 주민의 선호도는 높지만 현실가능성이 낮은 사업으로 자연관광 마을 및 예술마을과 함께, 기타 의견에서 제시된 청소년수련관 등 교육기관 유치, 타 지자체와 교류 업무협약, 캠핑장 및 민박 조성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 추진을 위해 현실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사업으로 구성됨
 - III유형에 포함된 사업은 대청동 주민의 노력만으로는 추진이 어려운 사업인 자연관광 마을 및 예술마을 조성, 교육기관 유치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이와 함께, 캠핑장, 민박 조성사업 등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현재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이 포함되어 현실가능성이 낮음
 - III유형에 포함된 사업은 관광 관련 사업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주민 인식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관광을 통한 소득증대 선호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 자연관광 마을 및 예술마을 조성으로 관광객 증가와 함께, 문화기반시설 확충이라는 효과를 창출할 수 있으며, 청소년수련관 설치, 타 지자체와 교류 및 관광 등의 업무협약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역 발전과 젊은 세대 인구 유입이라는 효과가 예상됨
 - 이를 통해 관광객 증가에 따른 주민 소득증대, 생활 인프라 확대에 따른 청년 인구 유입 등 다양한 효과 창출이 예상되며 장기적으로 지역 소멸 방지와 경제 활성화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자연관광 마을 및 예술마을 조성을 위해 관련 대전광역시 동구는 규제 개선, 환경 정비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대청동 주민은 생태 환경 보전 및 규제 준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IV유형은 대청동 주민의 선호도와 현실가능성이 모두 낮은 사업으로 양봉 및 양봉체험, 마을기업이 포함됨
 -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내에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지만 타 사업에 대한 영향력, 주민의 의견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이 현실적으로 반대가 많은 사업이므로 주민의 인식과 환경 개선을 통해 추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결론

1. 연구의 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경제적 피해가 누적된 대청호 유역의 주민을 위한 소득증대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자료 및 홍보자료 등으로 활용하는데 있음
- 대청호 유역 및 대청동에 대한 현황분석, 상수원관리지역 규제 검토 및 유사 사례 검토를 통해 대청동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친환경 주말농장, 양봉 및 양봉체험, 치유농업 및 힐링팜, 자연관광 마을, 예술마을, 스마트팜, 농민 장터, 마을기업 총 8개의 사업을 도출함
- 8개의 사업에 대해 대청동 주민 및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호도, 현실가능성 및 기타 의견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8개의 사업 및 인식조사를 통해 도출된 사업을 선호도, 현실가능성 및 기타 의견을 반영하여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함
 - I 유형은 주민 선호도와 현실가능성이 모두 높은 사업으로 현행 규제 내에서 추진할 수 있는 농민 장터, 친환경 주말농장이 포함되어 있으며, 과거 지적된 문제점 해결을 통해 주민의 소득 증가와 관광객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음
 - II 유형은 주민 선호도는 낮지만 현실가능성이 높은 사업으로 현행 규제 내에서 추진할 수 있는 치유농업 및 힐링팜, 스마트팜이 포함되어 있으며, 신규 프로그램 도입 및 시설·장비 설치로 새로운 수요 창출과 농업의 생산성 및 편의성이 향상으로 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이지만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과 지자체 간 협력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III 유형은 주민 선호도는 높지만 현실가능성이 낮은 사업으로 주민의 노력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자연관광 마을 및 예술마을 조성, 청소년수련관 등 교육기관 유치, 타 지자체와 교류 업무협약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행 규제 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인 캠핑장 및 민박 조성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도적 보완과 함께 타 지자체와의 협력, 규제 준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IV유형은 주민 선호도와 현실가능성이 모두 낮은 사업으로 양봉 및 양봉체험, 마을기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행 규제 내에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지만 타 사업에 대한 영향력, 주민 의견을 고려하여 주민 인식 및 환경개선 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2. 대청호 유역 주민 소득증대 사업 추진 방안

- 대청호 유역의 대청동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네 가지의 사업 유형을 도출하였으며,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및 주민의 역할, 개선해야 할 점 등 추진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주민 선호도와 현실가능성이 높은 농민 장터, 친환경 주말농장을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는 유희공간을 활용한 판매 공간 지원과 친환경 주말농장 홍보 강화 및 적정 비용을 산정해야 함
 - 현재의 소규모 농민 장터는 주민이 농작물 판매에 따른 소득증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이므로 대전광역시 동구는 대청동 공동작업장을 농민 장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진행하되, 리버마켓 사례를 반영하여 물건 판매와 함께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함
 - 대전광역시 동구는 친환경 주말농장 운영으로 주민소득이 실질적으로 제고될 수 있도록 타 친환경 주말농장 사례를 반영하여 계약 및 지원 금액, 농장 평당 적정 비용을 산정해야 하며, 주민이 편리하게 주말농장을 계약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동행서울 친환경농장 사례를 반영하여 주민이 친환경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친환경 농법 및 영농지도를 실시해야 하며, 필요시 농업기술센터 등을 활용한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 대청동 주민은 친환경 농업 및 새로운 영농기법을 적극적으로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역량 강화 노력이 필요하며, 친환경 농산물 및 체험이라는 이미지를 유지 및 강화할 수 있도록 의식 수준의 향상을 도모해야 함
 - 마지막으로 유튜브, SNS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농민 장터 및 친환경 주말농장을 홍보 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동구와 대청동 주민 간 협력이 필요함

- 둘째, 주민 선호도는 낮지만 현실가능성이 높은 치유농업 및 힐링팜, 스마트팜을 추진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동구는 새로운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교육 및 경제적 지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주민은 대전광역시 동구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대전광역시 동구는 주민이 치유 프로그램을 습득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등과 협력하여 대청호형 치유농업 사업 모델 및 대전광역시 동구 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와 협력하여 치유농업-심리치료 연계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주민이 치유 프로그램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지원이 선행되어야 함
 - 이와 함께, 스마트팜 보급사업을 지원하며, 스마트팜 설치에 따른 각종 혜택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대청동 주민은 치유 프로그램 습득을 위한 정규 교육 이수와 치유농장 운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에 참여하는 등 주민 역량 강화가 필요함
- 셋째, 주민 선호도는 높지만 현실가능성이 낮은 자연관광 마을 및 예술마을 조성, 청소년 수련관 등 교육기관 유치를 위해 대전광역시 동구는 각종 제도 정비와 타 지자체와 협력이 추진하며, 주민은 관광객 증가에 따른 규제 준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지자체는 예술가가 작품활동 및 주민과의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청동의 유휴공간을 개편하여 지원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일부 예술가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주 기간, 주민과의 필수 문화 활동 시간, 전시회 실시 등 지원 방법과 기준을 설정하는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교육기관 유치, 교류 업무협약을 위해 대전광역시와 타 지자체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하며, 교육기관 유치에 따른 공공일자리 연계 등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하여 다양한 타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와 함께, 현행 상수원보호구역 내 캠핑장 및 민박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한 노력과 함께, 현 대청호 상수원 보호를 위한 규제 준수 노력도 병행해야 함
 - 자연관광 마을 및 예술마을 조성은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닌 친환경 주말농장 및 치유농업 체험과 농민 장터, 문화 공간 등이 포함된 친환경 관광 농촌체험마을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대청동 주민은 치유 프로그램 습득을 통해 특화된 자연관광 마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추진해야 하며, 예술마을 이미지 형성을 위해 예술가-주민 간 협의회 실시와 문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할 것임

- 마지막으로 현행 규제 내 캠핑장 및 민박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주민 스스로 규제 준수 및 대청호 보호를 위한 오·폐수 처리시설 확충 등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
- 넷째, 주민 선호도와 현실가능성이 모두 낮은 양봉 및 양봉체험, 마을기업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며, 지자체는 다양한 주민자치 및 마을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참여 공모사업을 활성화하여 마을기업 형성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 대청호 유역 주민 소득증대 사업 추진 방안을 정리하면 대청동이라는 지역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대전광역시 동구와 주민 간 역량을 결합하는 것이 핵심임
 - 대전광역시 동구는 주민 소득증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각종 행정 역량을 집중하여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며, 대청동 주민은 소득증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
 - 다만,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규제 적용과 행정 지원의 한계를 고려할 때 대청동 주민은 스스로 적극적인 소득 증대사업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주민자치회, 마을기업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여 행정 지원의 노력과 주민의 협력이 결합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함
- 마지막으로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대청동 주민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인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대책이 필요함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거주인구와 외부인구의 생산 및 소비활동을 적절하게 제한하여 상수원수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함이지만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토지이용 및 행위제한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함
 - 대청동은 공공하수관로가 준공되어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주요 행위제한 완화의 내용만으로는 주민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한계가 존재함
 - 오염원을 차단할 수 있는 고도시설의 설치와 하수관로 확충을 통해 대청호의 수질환경을 보존하면서 생활환경의 변화 및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상수원보호구역 거주인구에 대한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

참고
문헌

- 관계부처 합동. (2018). 스마트팜 확산 방안. 2018.4.
- 관계부처 합동. (2021).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 종합대책. 2021.12.
- 국립농업과학원. (2021). 로컬푸드 바로알기. 2021.5.
- 국회예산정책처. (2022).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추진현황과 개선과제. 2022.6.
- 김소윤, 백경미, 류시영. (2016). 체류형 농촌관광의 특성과 성공요인 연구: 제주 한달살기를 사례로. *Tourism Research*, 41(4), pp. 41-58.
- 남윤철. (2017). 로컬푸드 직매장 접근성 및 개방.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19(1), pp. 43-50.
- 농림축산식품부. (2022). 2022년 스마트팜 선도사례집. 2023.1.
- 농림축산식품부. (2022). 제2차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 2022.12.
-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1). 2021 로컬푸드를 활용한 사회적경제모델 우수사례집. 2021.12.
- 농촌진흥청. (2021). 도시농업. 농업기술길잡이, 178.
- 농촌진흥청. (2022). 제1차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22~'26).
- 대전광역시 동구. (2023).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규제현황 및 개선방안.
- 대전광역시 동구. (2023). 대청호 규제 현황 참고자료.
- 대전광역시. (2023). 2023년 1분기 산업단지현황.
- 대전발전연구원. (2015). 대청호 유역의 활성화 방안 과제. 정책연구보고서. (2015-64).
- 문화체육관광부. (2012). 녹색관광 발전전략 수립. 2012.12.
- 서울특별시. (2022). 2022함께 서울 친환경농장 가꾸기.
- 서울특별시 경제정책실. (2020). 100만 도시농부가 만드는 건강한 서울, 서울도시농업 3.0 마스터플랜. 2020.4.
- 서울특별시 경제정책실. (2021). 2021년 서울시 도시농업 육성 시행 계획. 2021.4.
- 신란희. (2018). 예술가의 레지던시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서울도시연구*, 19(1), pp. 77-93.
- 진선미, 서충원. (2019). 주거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관한 특성 연구. *부동산학연구*, 25(3), pp. 7-22.
- 하명구, 이규홍. (2020). 공예가의 해외 레지던스 프로그램 참가 활성화 방안 연구-일본 마루누마 예술의 숲 국제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를 사례로. *한국디자인포럼*, 69, pp. 183-193.
- 한국관광공사. (2010). 녹색관광 실태조사. 2010.11.
- 한국관광공사. (2023). 워케이션 자치체육 가이드북.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농업전망 2012(I). 2012.2.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국내의 국제레지던스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2008.12.
- 행정안전부. (2023). 2023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 환경부. (2022). 팔당·대청호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환경자료. 2022.12.